

농촌도우미 역할 '톡톡'

임실군 도농인력지원센터, 도시민 일자리 ·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호응 얻어

임실군이 생활권 인접지역과 함께 추진 중인 임실군 도농인력지원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바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농촌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장거리와 경기불황으로 대도시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농촌과 도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 2017년까지 3년간 15억 8100만원의 지원받아 임실군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임실군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임실과 순창, 남원지역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접지역간의 농촌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행복을 공동 모색하는 등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부상조형 상생 프로젝트다.

이들 3개 지자체와 3개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2015년 도농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설립해 다양한 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주변의 유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전략품목인 복숭아와 양파, 감자, 고추, 파프리카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귀농귀촌인과 도시권 인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 성과를 보면 첫 해인 2015년 1,712명을 시작으로 2016년 4,064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난 2년간 800농가에 5,776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군은 올해까지 1만여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인력지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에는 도시권 인력이 투입되면서 농작업에 다소 서툴러 애로 사항도 적지 않았으나, 현재는 숙련된 고급인력이 점차 늘어나는 등 참여인

원이 갈수록 증가 추세다.

농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촌지역에서도 도농인력센터의 역할과 만족도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군은 올해도 1만여명 이상의 농작업자를 확대 모집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에 힘쓰고 있다.

도농지원센터에서는 구인·구직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안전 및 농작업 체력교육을 받고 농가에 배치되면 농가는 인건비와 증식을, 지원센터는 안전용품, 안전 보험, 농작업 체력 교비, 교통비를 각각 지원한다.

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오수면의 한 농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센터에서 부족한 농가일손을 지원해주셔서 한층 농사일이 수월해져서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참두릅 '국민 농산물' 로 '인기'

군, 전국 롯데마트 등서 판매 행사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순창 참두릅이 지난 14일 전국 롯데마트 116개 점포와 롯데슈퍼 360개점, 창동, 수원, 성남 하나로 유통센터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판매에 막을 올렸다.

관련해서 14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 하나로 물류센터에서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구립·동계·서순창·순창농협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순창 참두릅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직거래 행사도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도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며 "순창 참두릅은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농민들이 정직하게 재배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불합기 물산 나는 순창 두릅을 많이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시사회와 판촉 활동 등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1시간 동안 500g포장 600세트가 매진될 정도로 도시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군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한 물량이 4톤 규모 9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미 1개월 전부터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태로 달라진 순창 참두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도 55톤 규모 11억원 가량이 판매되고 가락시장, 공관장 등을 포함하면 올해 순창군 참두릅 판매규모는 350여톤 5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순창 참두릅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선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라 맛과 향이 진하고 우수하며 사포닌, 단백질, 각종 비타민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관내 구립·동계·서순창·순창농협 등

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선출하를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순창물산'에 참두릅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통합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홍보와 유통에 집중한 점도 성공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순창 참두릅이 전국적 브랜드 구축에 성공했다고 보고 앞으로 유통망 확대와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순창두릅을 제값 받는 농업 삼라농정의 대표 작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에는 현재 500여 농가가 300ha에서 두릅을 재배하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 춘향제향, 원형 복원한다

시, 국악예술인 참여로 원래모습 되살리기로

춘향제향위원회에서는 춘향제 대표적 전통문화행사인 춘향제향을 직접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국악예술인이 참여하여 제례에 담긴 뜻과 원형을 되살릴 계획이다.

춘향제향은 1931년 4월 춘향사당을 준공한 남원양도당을 중심으로 만고열녀 춘향에 대한 제사를 드리며 시작되었고, 남원권민 소수 예술인들이 제관이 되어 일제 강점기 남원지역에 춘향제사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후 남원국악원 주도로 이어져 오다가 남원여고 및 남원제일고 학생들이 장기간 제원으로 참여해 제향을 올렸었고, 10여 년 전부터 몇 번에 걸쳐 원형복원을 시도해 왔으나 지속되지 못했다. 제 82회 때부터 춘향문화선양회가 주관하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관과 제원을 모집하여 추진해 왔으나 올해 실시한 춘향제향위원회 공모사업 춘향제향 부문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제정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향제향위원회에서는 춘향제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권민의 후신인 시립국악단의 국악예술인과 함께 춘향제향 및 춘향제향 기록연구 용역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제수도 초기 원형에 맞춰 소박하되 정성스레 준비하고 성균관의 자문을 받아 유교식 홀기에 맞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춘향제향위원회에서는 최초 춘향제례에 담긴 뜻을 되살리고 원형대로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남원시와 함께 춘향전 및 춘향제향 기록연구 용역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춘향제향은 국가와 지역의 문화회복을 염원하는 지역유지와 함께 절개와 높은 수준의 예술을 수행해왔던 교방과 궁중여악이 일제에 의해 해산되면서 지역으로 내려와 있던 예술기생과 선생들의 명예회복이 담겨져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노후준비교육 스쿨 성료

순창군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교육 중 하나인 미니메드스쿨 과정을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미니메드 스쿨과정은 치아, 근골격계, 암, 비만, 당뇨 등 노후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생활 습관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상식과 예방법을 배우는 건강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군 공무원 23명이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진과 태초머거러 이계호 교수 등 국내 유명 교수진의 강의와 전북대 스포츠과학과의 운동처방교육, 요리식단실습 체험 등이 병행되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점검의 날은 우리주변의 위험 요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각종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4일 첫 행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였다.

남원시 또한 이에 동참하여 용남시장에서 민간관함으로 제23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점검의 실천과 안전문화의식의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원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의용소방대, 안전문화실천연합회,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약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주민등록 유출 변경 실시

임실군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위한 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가 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20일부터 '점자여권' 발급

임실군이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일 '제37회 장애인 날'부터 시각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한다.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비용은 없다.

또한 군은 매주 수요일(지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여권업무 연장 근무제'를 실시해 지역민 편의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자여권 도입으로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